

이슈

2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제2917호

내가 왜 떴게?

장기보다 소중한 기증



●이왕표, 장기기증 무산 : 암 투병 끝에 지난 4일 '마지막 태그'를 하고 삶의 링을 떠난 이왕표 한국프로레슬링연맹 대표. 생전 그는 40년간 1600회의 경기를 치렀고, 일곱 차례 세계 챔피언에 올라 '영원한 챔피언'으로 불렸다. 한국 프로레슬링의 전설 '바치기왕' 김일의 수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마지막 수술 전 이왕표는 사후장기기증 서약을 했고, 특히 시력을 잃은 방승인 이동우에게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유언은 이뤄지지 못할 것 같다. 5년간의 투병으로 장기의 기능이 기증에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이다. 이동우 역시 이식을 받는다고 해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받을 수 없다고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는 장기보다 소중한 감동과 사랑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기증'하고 갔다.

불만 있으면 올라와라



●로드FC 함서희, 자동차 모델 : 로드FC의 '아름다운 챔피언' 함서희가 자동차 모델이 됐다. 쌍용 자동차가 출시한 2019 티볼리의 광고 모델이 돼 활약을 마쳤다는 소식이다. 함서희는 영상 속에서 로드FC를 대표하는 여성 챔피언으로서 맹수 같은 눈빛과 파이터다운 퍼포먼스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함서희는 지난 6월 XIAOMI 로드FC039에서 일본의 쿠로베 미나를 꺾고 '아름다운 챔피언'에 등극했다. 12월 1차 방어전도 무사히 치렀다. 현재는 부상을 회복하고 11월에 열릴 XIAMI 로드FC050을 위해 준비 중이다. 역대 최강의 모델이네. 레이싱모델 단체로 팀버도 못 이길 듯.

비자 승인, 그게 그렇게 어렵나

●카누 단일팀, 미국 못 간다 :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북 카누 용선 단일팀이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북한 전문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단일팀은 북한선수들의 비자 발급문제로 12~16일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 어렵게 됐다고 한다. 국제카누연맹이 국제올림픽위원회, 미국측과 접촉을 했지만 미국 국무부가 북한 선수들에게 비자를 승인하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게 그렇게 어렵나. 융통성이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밖에.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AG 후폭풍 이렇게 거셀줄이야 | 야구와 축구 엇갈린 흥행 예감



축구국가대표팀 선수들이 5일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진행된 팀 훈련에 앞서 가볍게 러닝을 하면서 몸을 풀고 있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로 A대표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주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2만 관중 빠진 야구장...축구는 예매율 80%

(지난 4일 프로야구 관중) (A대표팀 평가전)

병역 잡음에 대만에 망신당한 야구 금메달에도 관중수 2만명이나 줄어
투혼 불사른 축구엔 온국민이 환호
7일·11일 대표팀평가전 매진 예상

한국의 인기 구기 종목인 야구와 축구(남자)는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야구는 2010광저우AG를 시작으로 3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고, 축구는 2014인천AG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번 금메달로 야구는 24명 중 9명의 선수가, 축구는 20명 전원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똑같이 금메달을 획득하고 병역 혜택을 받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

은 온도차이가 극명하다. 야구는 대중들의 시선이 차갑다 못해 따갑기까지 하다. 야구 자체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종목이 아니어서 애초에 한국, 대만, 일본간 3개국의 메달 색깔 경쟁이었다. 게다가 대만, 일본은 실업야구 위주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금메달은 따 논 대상이었다. 문제는 금메달에 따른 병역 혜택을 노린 뉘앙스가 워낙 짙다보니 팬들 사이에서는 '은메달을 땀으로 좋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야구는 이미 인천대회 때도 군입대 시기를 놓친 몇몇 미필선수들이 구설에 올랐었다. 워낙 대중의 반응이 차갑다보니 KBO리그의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선수들은 금메달을 획득하고도 좋아하는 내색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AG

멤버인 황재균(KT 위즈)은 "응원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나 플레이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다. 선수들이 직접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힘들었을 것이다"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이야기 했다. AG 이후 KBO리그의 침체된 분위기는 관중집계로도 나타났다. KBO리그가 재개된 4일 총 3만5435명의 관중이 야구장을 찾았다. AG 이전 KBO리그 하루(5경기) 평균관중은 5만6390명이었다. 비교적 관중수가 적은 평일이라는 점도 고려해야겠지만, 분위기가 싸늘해진 것만은 틀림없다. 반대로 축구는 'AG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AG엔 나선 23세 이하(U-23)축구 대표팀은 AG에서 18일간 7경기를 치르는 혈투를 펼쳤다. 손쉽게 금메달을 딴 야구와 달리 축구는 8강 토너먼트부터 결승전

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경기가 없었다. 선수 전원이 체력이 바닥난 상황에서도 정신력을 발휘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손흥민(토트넘)은 물론이고 AG에서 돋보인 활약을 펼친 황의조(김바 오사카), 이승우(베로나) 등은 전 국민이 환호하는 영웅이 됐다. 한국축구대표팀은 오는 7일(코스타리카·고양)과 11일(칠레·수원) 두 차례 평가전을 갖는다. 이번 평가전에 나서는 대표팀은 AG 대표팀 멤버가 8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또한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감독의 데뷔전이기도 하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7일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은 예매율 80%, 11일 칠레와의 평가전은 예매율이 70%를 넘어섰다. 두 경기 모두 매진이 예상된다. AG 후폭풍에 야구는 울고 축구는 웃는다. 정지욱·서다영 기자 stop@donga.com

벌써 4번째 빌보드 핫100 '기적의 BTS'

타이틀곡 '아이돌'까지 11위 기염
뮤비 조회 1억건·포인트 춤도 화제

방탄소년단이 3집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앤서'로 두 번째 빌보드 정상에 오른데 이어 타이틀곡 '아이돌'이 9월8일자 빌보드 싱글차트인 핫100에서 11위를 차지했다. 5월 발표한 3집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는 10위에 오른 바 있다. 5일 빌보드는 "BTS가 '아이돌'로 통산 네 번째 핫100에 진입했다. 8월30일 집계까지만 디지털 송 세일즈에서 4만3000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스트리밍도 2440만 건으로 집계됐다. 방탄소년단이 기록행진을 이어가면서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다. 8월24일 공개된 '아이돌' 뮤직비디오는 최단 시간(4일 23시간)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기록했다. '페이크 러브'가 세운 종전 기록(9일)을 나흘이나 앞당겼다. 특히 아프리카 댄스 구아라구아라와 한국의 사물놀이 및 탈춤을 접목한 '아이돌'의 포인트 춤은 '아이돌챌린지'(#IDOLCHALLENGE)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아이돌챌린지'는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보고 해외 팬들이 춤을 따라 추는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그룹 내에서 '댄스 팀장'을 맡은 제이홉이 '아이돌'의 포인트 춤을 알려주는 영상을 트위터에 공개하자 더 많은 팬들이 'URSOO(얼췌)'라는 동작과 추임새로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아이돌챌린지' 열풍에 미국 지상파 NBC는 8월30일 뉴스프로그램 '얼리 투데이'를 통해 "전 세계 팬들이 '아이돌챌린지'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빌보드 역시 "세대 구분 없이 전 세계 팬들이 모두 춤



방탄소년단이 신곡 '아이돌'로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에서 1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 열풍을 이어나가고 있다.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을 추고 있다. 제이홉의 안무 영상은 공개하자마자 바로 트렌드가 됐다"고 전했다. 해외 유명가수들이라고 다르지 않다. 칼 리드와 에드 시런, 니키 미나즈 등 팝스타들은 SNS를 통해 "BTS"를 연호하고 있다. 이들 뿐만 아니라 내로라하는 팝 가수들이 방탄소년단과 함께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는 열망을 표명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방탄소년단의 신기록 행진과 축제 사이가 흐를수록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5일부터 미국 LA를 시작으로 유럽 등 전 세계 16개 도시에서 공연을 열고 총 79만 명의 해외 팬들과 만난다. 특히 10월6일엔 '꿈의 공연장'으로 불리는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한국가수 처음으로 스타디움 공연을 연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베트남 박항서호, 10월에 한국 온다

10년만에 스키캡 우승 도전
파주 NFC서 2주간 전지훈련

'베트남의 한인 영웅' 박항서(59) 감독이 베트남축구대표팀을 이끌고 10월 한국을 찾는다. 복수의 축구 관계자들은 5일 "박 감독과 베트남 A대표팀이 10월 12일 방한, 2주 일정으로 전지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훈련 장소는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다. 베트남 A대표팀이 한국을 찾은 이유는 11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남아 일원

을 돌며 펼쳐질 AFF(동남아시아축구연맹) 스키캡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2년 주기의 스키캡에서 베트남은 2008년 우승한 이후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와 대회 조별리그 A조에 편성된 베트남은 11월 8일 라오스와 원정 1차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나선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박 감독이 10년의 아쉬움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폐막한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에서 박 감독이 이끈 23세 이하(U-23) 대표팀은 동남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대회 4강에 올랐다.



'빨당크' 박항서(왼쪽 끝) 감독이 10월 베트남 축구대표팀과 함께 한국을 찾는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한국과의 4강전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는 박 감독. 차비봉(인도네시아) | 뉴시스

한국~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벽에 막혀 AG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으나 베트남 팬들은 1월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에 이은 또 한 번의 쾌거에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고 있다.

베트남 축구 사정을 잘 아는 축구계 인사들도 "자존심이 센 베트남인들은 축구를 '국기'로 여긴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실력이 우수하다고 본다"고 귀띔한다. U-23 대표팀의 성과에 자극받은 자국 대표팀도 선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베트남의 전지훈련 기간, 태극전사들도 우루과이(10월 12일)~파나마(10월 16일)로 이어질 A매치 시리즈에 나서지만 수도권 이외 도시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파주NFC에서 양국 대표팀의 조우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AG를 마친 박 감독은 6일 입국해 휴식을 취할 예정인데,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베트남 사격대표팀 박종건(52) 감독을 격려하기 위해 창원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